

뉴스와 쟁점 | News & Issue

베네수엘라와 칠레 선거가 좌파 의제와 경제통합을 진전시키다¹⁾

로저 부르바흐

12월 베네수엘라와 칠레 선거는 향후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파노라마에 틀을 제공함으로써 좌파 성향의 정부들과 이 지역의 포스트 신자유주의 정책들에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12월 8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베네수엘라통합사회당(PSUV)의 결정적인 승리로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에 활력을 안겨주었으며, 전임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추진해온 21세기 사회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마두로가 1.5%의 근소한 차로 승리를 거두자, 야당은 이를 선거부정으로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야기하여 나라를 뒤흔들려고 하였다. 만일 야당연합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뒀거나 득표율에서 근접한 결과를 얻었다면, 마두로 정권을 쓰러뜨리기 위해 전투적인 시위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사회당과 여당연합은 자치단체의 3/4 이상을 장악했고, 득표율에서 49% 대 43%로 야권에 앞섰다. 지금은 경제 장악에 초점을 맞춘 계급전쟁이 진행 중이다. 2015년 후반기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마두로 정부는 경제 문제에

1) 이 글은 웹사이트 '움직이는 라틴아메리카' (América Latina en Movimiento)에 2014년 1월 6일 발표되었다(<http://alainet.org/active/70218>).



대선에서 승리해 재임에 성공한 미셸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이미지 출처: <http://www.infobae.com/>)

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사회주의적 의제를 추구할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선거일 밤에 마두로는 “우리는 노동계급을 지원하고 중관계급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공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이를 위해 우리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륙의 다른 끝자락에서는 1주일 후에 미첼 바첼레트가 칠레 대선에서 62%를 득표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바첼레트는 법인세를 20%에서 25%로 올리고, 고등교육 문호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의료보험을 개선하고,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정권이 제정한 1980년도 헌법을 손질하겠다는 일련의 야심찬 정책 패키지를 제시해 왔다. 칠레는 34개 OECD 회원국가들 가운데 소득불균형이 가장 심한 국가다. 바첼레트는 집권 후 100일 안에 GDP의 약 3% 가량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입법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 당일 밤, 바첼레트는 “칠레는 우리 자신, 우리가 걸어온 길, 최근의 역사, 상처, 업적, 미완의 과업 등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칠레가 이제 심대한 변화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라고 천명했다. 또 “이 점에 대해선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이윤이 교육 뒤에 숨어 있는 엔진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고 꿈은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정책들이 실행된다면, 이는 바첼레트의 재임 1기인 2006~2010년을 포함해 피노체트 독재 때부터 모든 정부가 추종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과 결별할 것이다.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집권 후 그러했듯이, 실제적인 변화는 공약에 훨씬 못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4년에 걸친 학생시위와 사회운동의 재부상은 민중운동을 거리로 이끌었다. 피노체트 시절 이래 미증유의 일이었다. 좌파 활동가들은 바첼레트가 취임하는 그 순간부터 비판의 날을 세우겠다고 천명하고 있을 정도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선이 끝나자마자 해커들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우리는 대통령 당신을 그냥 편히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은 저항의 해가 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베네수엘라와 칠레의 선거는 최근 미국이 견인하는 12개 태평양연안 국가들로 구성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역 구상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차베스가 대통령직에 오른 이래, 베네수엘라는 2001년 4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주도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필두로 미주지역의 교역을 지배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에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다. 지난 2005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4차 미주정상회의 때, 미국을 제외한 라틴아메리카 통합을 옹호하는 차베스, 브라질의 룰라, 아르헨티나의 키르츠네르의 리더십으로 FTAA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마두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10일 뒤, 미주볼리바르동맹(ALBA)과 석유를 염가로 공급받는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카리브석유동맹(PetroCaribe) 간에 개최된 제2차 정상회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이 가운데 5개 회원국은 중복된다). 2004년에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의해 창설된 ALBA는 “자유무역 대신 공정무역을”이라는 원칙에 기초한다. 현재 볼리비아, 에콰도르, 니카라과를 비롯해 카리브 지역 5개 국가를 포함하

고 있는 ALBA는 이 지역의 빈곤을 퇴치하고자 양 기구의 회원국들 간에 상호보완경제특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카리브석유동맹 회원국들과 회담을 가졌다. 마두로는 경제특구가 “라틴아메리카인의 식량안보와 주권에 진전을 가져오고, [농업] 발전 진흥을 위한 투자, 경험, 조치를 공유하기 위한 [...] 특별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이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계획은 유엔식량농업기구와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관장할 집행위원회는 에콰도르에 설치될 것이다.

마두로는 “Mercosur—PetroCaribe—ALBA라는 대단위 블록의 진전을 위해” 상호보완경제특구 창설을 위한 문서를 1월에 카라카스에서 열리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의에 가져가고자 한다. 이 모든 경제무역 관련 프로그램에서 베네수엘라는 전략적인 지정학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 최대 석유생산국이고, 카리브 유역의 남쪽이자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또한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기아나, 에콰도르, 페루, 수리남이 Mercosur 준회원국인 반면에 베네수엘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함께 회원국이다. ALBA—PetroCaribe 정상회담 폐막식에서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는 “우리는 우리의 통합, 즉 반제국주의 국가들의 통합을 더욱 강화하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바첼레트 대통령이 이끄는 칠레가 라틴아메리카 통합을 위한 점증하는 움직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역만장자였던 전임 대통령 세바스티안 피네라 집권 하에서 칠레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구축에 결부되어 있었다. 또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를 포함하는 무역과 투자 그룹인 태평양동맹의 창립 멤버이기



ALBA—Petrocaribe 간의 제2차 정상회담에 참석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이미지 출처: <http://news.bbcimg.co.uk/>)

도 하다.

바첼레트는 이런 목적을 추구하는 것만이 칠레의 관심사가 아니며, 앞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카리브 양 지역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선거 공약집에는 “칠레는 지역 내 위상을 상실했다.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는 문제투성이고, 상업적 관점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유대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라고 적혀 있다. 특히 바첼레트는 브라질과의 더 긴밀한 관계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 바첼레트 자신처럼 독재정권의 탄압 하에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은 젊은 지하운동가였던 지우마 호세 프 브라질 대통령과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1기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08년에 바첼레트는, 에보 모랄레스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직접 무기 지원을 받은 우익 ‘시민 쿠데타’ 시도를 물리칠 수 있도록 남미국가연합(UNASUR) 비상회의를 소집한 일은 잘 알려진 바이다.

점증하는 대륙의 분열 속에서 바첼레트가 어느 편에 설지 예측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그리고 태평양동맹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충실하겠다는 그녀의 다짐이 신자유주의와 결별하기 위한 국내적 노력들을 침식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는 인플레이와 암시장 환율 통제라는 버거운 경제 문제와 직면해 있는 한편, 정부 안팎의 심각한 부패와 싸우고 있다. 그러나 12월의 지방선거는 마두로로 하여금 눈앞에 산적한 이 같은 문제를 2014년으로 미루고, 미국의 구상과 대치되는 라틴아메리카 통합을 진전시키는 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공간을 열어주었다.

[신찬용 옮김]

로저 부르바흐(Roger Burbach) - 미주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the Americas) 소장

신찬용 - 전북대학교 스페인·중남미학과 교수